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what extent fathers and mothers differ in their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to identify the variables which were related to the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45 fathers and 245 mothers of kindergarten children. Descriptive analysis, Cronbach's α , t-tests, and correlations were used for data description and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① P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were somewhat differed from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but parental satisfaction was not differed between fathers and mothers. ② Factors contributed to patern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were somewhat differed from matern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③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higher parental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more reasoning guidance, affection, goal-oriented attitude, parental involvement, consistent rule-enforcement, and less authoritarian control.

주제어(Key Words): 부모 역할 만족도(parental satisfaction), 양육태도(child-rearing practices)

I. 서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부모 역할이 아동에게 미치

는 중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되어 왔으나(Thoits, 1992), 부모들의 가치체계는 산업화와 함께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서 이혼률의 증가, 보육원에 버려지는 아동들의 양적 급증,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이하경 등, 1998; 박경아, 1998). 이처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즐기고 만족하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에 있어 자녀양육은 결혼한 성인이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부모가 되는 사실 그 자체에 비해 매우 복잡한 일이며, 단기적인 시간과 에너지 투자를 통해 효과 또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다른 역할들과 기본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역할 중 가장 일차적이며 필수적인 자녀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만족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소를 경감시켜 성인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父), 모(母),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등의 반응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성 및 지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rner & Galambos, 1985; Simons et al., 1993).

한편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관련된 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국내 연구는 최근에 들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극히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편 안 되는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강희경, 1994; 현은강, 1994; 조복희·현은강, 1994)의 대부분은 부모역할만족도의 선행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변인들에 대

한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가 부모양육태도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는데 비해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국내연구는 도현심·김지신(1997)의 연구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 또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 구조의 상호보완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수행이 점차 강조되고, 아버지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일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 역할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되는(Cohen, 1987; Hass, 1988; 양미경, 1996) 시점에서 어머니와는 양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의 연계성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적지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Parke & Tinsley, 1987; Woodworth et al., 1996),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결과(윤서영·정옥분, 1999; 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버지와 자녀의 역동적인 관계를 내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여러 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써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 및 아동의 성격 형성이나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현은강,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들을 규명하고,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역할만족도에 있어 부모 변인(성, 연령, 교육 수준, 어머니 취업여부)과 가정의 소득 수준 그리고 자녀 변인(성,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양육태도에서 있어 부모 변인(성, 연령, 교육 수준, 어머니 취업여부)과 가정의 소득 수준 그리고 자녀 변인(성,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태도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1. 부모역할만족도 관련 변인

국내의 선행결과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변인들에서는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와 같이 자녀와 관련된 변인과 부모 자신이 가진 특성 즉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여부와 같은 부모 변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변인으로 남아보다 여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향은·정옥분, 1999; 양미경, 1996), 20대 출산모 집단의 경우 자녀의 출생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령출산모 집단에서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강희경, 1994)

다음으로, 부모 성별에 따른 역할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조복희·현은강, 1994; Chilman, 1980; 고선주·옥선화, 1994)와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있다(Hoffman & Manis, 1979; Rogers & White, 1998). 한편 Hoffman(1978)과 원정성(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에 따른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연령과 역할만족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Umberson, 1989; Wethington & Kessler, 1989)에서는 부모의 성숙도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

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반면 양미경(1996)의 연구에서는 30대 연령의 아버지들이 40대 이상 연령의 아버지들보다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김향은·정옥분, 1999),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Wethington & Kessler, 1989)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으며(현은강, 1994), 실제적인 수입의 양보다 심리적 상태로써의 경제적 불안감이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를 경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Lavee et al., 1996; Menaghan, 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조복희·현은강, 1994; Goldstein & Ross, 1989)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모로서의 만족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가 동시에 상존한다(강희경, 1994; 고선주·옥선화, 1994; Lavee et al., 1996; Scott & Alwin, 1989; Umberson, 1989; Marini, 1980). 한편, 어머니의 취업이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분담과 책임감이 증가되면서 아버지의 역할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언급된 결과도 있다(양미경, 1996; 양미경·조복희, 2000; 윤서영·정옥분, 1999).

이상과 같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상반 또는 일치되는 등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 부모양육태도 관련변인

Belsky(1984)의 양육행동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 이후 부모양육태도 및 행동은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생태학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제시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아동변인으로 부모는 여아에게 애정적인 측면과 의존심을 장려하는데 비해 남아에게는 성취 지향적이고, 통제적이며, 신체적인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Lytton & Romney, 1991; 궤혜경·조복희, 1999)가 있는 반면 임희수(1993) 및 Park과 Belsky(1998)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서는 첫째 아동 특히 여아가 첫째인 경우 부모는 덜 인내하며, 덜 지원적이며, 더 통제적이고, 요구하며, 간섭하며, 일관되지 않은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 et al., 1988).

다음으로 부모 및 외적 환경 변인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독립심과 경쟁심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Hewlet, 1992) 반면 어머니는 애정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wis & Weinraub, 1976),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통제를 더 많이 하고(궤혜경·조복희, 1999), 가정소득이 높은 부모는 더욱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문혁준, 1998). 또한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즉 어머니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 긴장이나 갈등,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일하는 동기 등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 사이에 역할갈등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반면 직업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Alvarez, 1985; MacEwen & Barling, 1991).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유치원 자

녀를 둔 아버지 245명과 어머니 245명이다. 연구 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8.0세(SD= 3.45),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9세(SD= 3.32)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36.1%(88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8.4%(45명), 대졸 이상 47.9%(117명)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고졸 이하 59.0%(144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3.9%(34명), 대졸 이상 27.0%(66명)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43.4%(10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2.5%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질문지 대상 아동은 첫째 52.7%(127명), 둘째 41.4%(101명)이었으며, 남아 49.0%(120명), 여아 51.0%(125명)이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 56.5%(138명), 200만원 이상 43.4%(106명)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부모역할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현온강·조복희(1994)의 부모역할 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경우 일반적 만족도 10문항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0문항, 어머니의 경우 일반적 만족도 10문항과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10문항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반반', '약간 부정', '전적으로 부정'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 α 는 아버지의 경우 일반적 만족도 .90,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81이며, 어머니는 일반적 만족도 .84,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93으로 나타났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박성연·이숙(1990)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등 7개 하위 요인에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

〈표 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Cronbach's α)

척도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어머니
합리적인 지도	7	.88	.70
애정	7	.84	.84
권위주의적 통제	7	.76	.78
과보호	8	.71	.72
성취	2	.75	.69
적극적인 참여	5	.80	.77
일관성 있는 규제	4	.68	.65
총	40	.82	.79

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며, 애정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보이며, 과보호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위해서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있어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연령을 중심으로(아버지: 38.0세; 어머니 35.0세)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대졸 미만을 하위집단, 대졸 이상을 상위집단으로 나누고,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 이하를 하위집단, 전문대졸 및 대학 중퇴 이상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을 낮은 집단, 200만원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간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만족도와 하위 양육태도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4. 조사절차

본 연구는 부산 시내 및 근교 10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아동의 귀가시간에 300부(아버지용 질문지 300부, 어머니용 질문지 300부)의 질문지가 가정으로 보내졌다. 2주간에 걸쳐 총 270쌍의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되어 9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거나 한쪽의 부모만이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245쌍의 질문지(아버지·어머니 포함)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와 모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할만족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mberson(1989)의 연구에서 부모의 배경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부모의 성에 따른 역할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Rogers와 White(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만족도가 어머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은 각 연구의 표집 대상이 처해진 개인 환경(예: 자녀 변인, 부모 변인, 가정 외적 변인 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제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는 합리적 지도($t=2.51, p < .05$), 애정적 태도($t=2.30, p < .05$), 권위주의적 통제($t=3.07, p < .01$), 적극적인 참여($t=3.62, p < .001$)에서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과보호, 성취, 일관성 있는 규제에서는 부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역할수행을 하면서 인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아버지의 경우

〈표 2〉 부와 모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구 분	아버지 (N=245)		어머니 (N=245)		t값
	M	SD	M	SD	
일반적 만족도	14.63	5.16	15.04	4.49	-1.10
합리적인 지도	13.79	4.10	13.07	2.82	2.51*
애정	14.93	4.55	14.12	4.02	2.30*
권위주의적 통제	24.29	4.77	23.23	4.28	3.07**
과보호	27.68	4.72	27.14	4.75	1.57
성취	3.29	1.17	3.23	1.11	.667
적극적인 참여	12.96	3.84	11.99	3.28	3.62***
일관성 있는 규제	7.89	2.38	7.60	2.23	1.78

*p<.05, **p<.01, ***p<.001

여전히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자녀와의 놀이나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자녀를 돌볼 때 힘들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들은 여전히 어머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최혜숙·이은해, 1998) 등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역할 및 책임부담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아버지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있어 부모 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과 가정의

소득수준 그리고 자녀 변인(성,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ldstein과 Ross(1989)의 연구와 Umberson(1989)의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 교육, 수입 등이 부모로서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소득수준, 자녀의 성별

〈표 3〉 아버지 양육태도

구 분	N	양육태도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M	M	M	M	M	M	M
아버지의 연령								
낮은 집단	116	13.96	14.97	25.08	27.77	3.30	12.66	7.98
높은 집단	129	13.64	14.89	23.57	27.60	3.29	13.24	7.81
	t값	.597	.127	2.49*	.269	.099	-1.19	.552
가정의 소득 수준								
낮은 집단	138	14.12	15.54	23.96	27.43	3.37	13.28	7.73
높은 집단	107	13.37	14.09	24.73	28.02	3.19	12.48	8.08
	t값	1.43	2.49*	-1.25	-.957	1.19	1.63	-1.15
아동의 성별								
남 아	120	13.75	15.01	23.43	27.73	3.33	12.96	7.70
여 아	125	13.83	14.85	25.11	27.63	3.26	12.97	8.08
	t값	-1.56	.275	-2.81**	.168	.514	-.020	-1.25

*p<.05, **p<.01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있어 38세 미만의 아버지는 38세 이상의 아버지에 비해 더 권위주의적 통제($t=2.49, p<.05$)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Nye 등(1970)의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더 권위적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로서의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200만원 미만의 가정 소득 수준을 가진 아버지 집단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아버지 집단에 비해 더 애정적인($t=2.49, p<.05$)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기 일에 많은 시간 및 에너지를 투자하므로 자녀와 상호작용이 적게 되며 따라서 애정과 통제가 적은 것으로 밝혀진 허영립·윤혜진(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높고 보다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이현란(1992)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IMF 이후 입사 서열이 중시되던 과거의 직장 문화와 달리 능력을 위주로 한 연봉제 및 계약제 등의 확산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느끼는 상대적 죄책감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권위주의적 통제($t=-2.81, p<.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진정이 더욱 쉽지 않다고 지각하며(문혁준, 2000), 여아의 까다로운 기질보다 남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더 수용적인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Rendina & Dickerscheid, 1976; Sanson et al, 1993)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있어 부모 변인(연령,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과 가정의 소득 수준 그리고 자녀 변인(성,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와 2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t=2.00, p<.05$)와 200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어머니($t=2.36, p<.01$)에 비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배우자의 지지에서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허경옥, 1994)에서 남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측면과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지지 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 원인을 밝히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첫째,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덜 애정적($t=2.66, p<.01$)이며, 일관성 있는 규제($t=2.28, p<.01$)를 적게 보이며 더 권위주의적 통제($t=-2.34, p<.05$)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태도에 있어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학업 성취를 기대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경향이 많은 점(Hirsh-Pasek et al, 1990)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열이 양육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취업한 어머

<표 4> 어머니 역할만족도

구 분	N	부모역할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M	M
하위집단	145	15.08	14.95
상위집단	100	22.60	22.45
	t값	.216	2.00*
가정의 소득 수준			
낮은 집단	138	15.14	14.87
높은 집단	107	24.83	22.27
	t값	.477	2.36*

*p<.05

니는 비취업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 더 합리적인 지도($t=-2.75, p<.01$)와 일관성 있는 규제($t=-2.24, p<.05$)를 보이는 반면 더 과보호적($t=-2.31,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해 갈등 및 죄책감을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더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인 태도는 부모로서의 죄의식을 과잉보상하려는 경향(Gottfried & Gottfried, 1988)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어머니 집단은 소득 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에 비해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 더 애정적($t=2.80, p<.01$)이고, 성취지향적($t=2.02, p<.05$)이며, 적극적인 참여($t=3.10, p<.01$)

를 하며 아울러 덜 권위주의적인 통제($t=-2.60, p<.01$)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개인 특성에 더 민감하고 융통적이 있으며(Prior et al., 1989), 그들의 자녀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며 이유와 함께 설명하며 더 애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Maccoby, 1980)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정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가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 양육태도를 결정짓는데 있어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t=2.33, p<.05$)를 보이며, 첫째보다 둘째 이하의 자녀에게 더 과보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2.70,$

〈표 5〉 어머니 양육태도

구 분	N	양육태도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M	M	M	M	M	M	M
어머니 교육정도								
하위집단	145	13.24	14.67	22.71	27.13	3.32	12.31	7.85
상위집단	100	12.82	13.29	24.00	27.19	3.10	11.50	7.20
	t값	1.13	2.66**	-2.34*	-.094	1.51	1.90	2.28*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	177	12.75	13.86	23.17	26.71	3.16	11.93	7.41
취업	68	13.85	14.78	23.40	28.27	3.43	12.15	8.12
	t값	-2.75**	-1.58	-.379	-2.31*	-1.73	-.471	-2.24*
가정의 소득 수준								
낮은 집단	138	13.34	14.72	22.62	27.01	3.36	12.54	7.56
높은 집단	107	12.71	13.29	24.04	27.34	3.07	11.25	7.62
	t값	1.74	2.80**	-2.60**	-.529	2.02*	3.10**	-.225
아동의 성별								
남아	120	13.13	14.21	23.22	26.92	3.12	12.48	7.60
여아	125	13.01	14.03	23.25	27.35	3.34	11.51	7.60
	t값	.323	.343	-.057	-.717	-1.54	2.33*	.000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129	13.01	13.99	23.26	26.35	3.21	11.89	7.60
둘째-넷째	115	13.15	14.27	23.21	27.97	3.25	12.09	7.59
	t값	-.386	-.536	.086	-2.70**	-.299	-.463	.047

* $p<.05$, ** $p<.01$

p<.01). 이는 남아가 지니는 기질적인 특성과 남아의 외향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기준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의 차이 또는 신념 차이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남아 또는 맏이에게 강조되는 책임의식과 자립심이 차별화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표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일반적 만족도는 합리적인 지도(r=.21, p<.01), 애정(r=.34, p<.001), 권위주의적 통제(r=-.28, p<.001), 성취(r=.26, p<.001), 적극적인 참여(r=.25, p<.001), 일관성 있는 규제(r=.18,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합리적인 지도(r=.44, p<.001), 애정(r=.56, p<.001), 권위주의적 통제(r=-.34, p<.001), 성취(r=.39, p<.001), 적극적인 참여(r=.46, p<.001), 일관성 있는 규제(r=.31,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일반적 만족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아버지는 자녀를 더 합리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으로 양육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가 유아의 신체 및 운동능력, 지적능력, 책임수행 능력,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 인성을 포함한 생활능력과 관련이 있으며(노현미·박인전, 1999),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유능성 및 지도력과 관계가 있고(최경순, 1992),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김현순, 1993)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발달과의 연계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일반적 만족도는 합리적인 지도(r=.29, p<.001), 애정(r=.38, p<.001), 권위주의적 통제(r=-.20, p<.01), 성취(r=.25, p<.001), 적극적인 참여(r=.31, p<.001), 일관성 있는 규제(r=.16,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배우자의 지지는 합리적인 지도(r=.21, p<.01), 애정(r=.26, p<.001), 권위주의적 통제(r=-.23, p<.001), 성취(r=.12, p<.05), 적극적인 참여(r=.23, p<.001), 일관성 있는 규제(r=.2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어머니의 일반적 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 합리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으로 양육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나 지원은 아내의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에 중요한 영

<표 6>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합리적인 지도	.21**	.44***
애정	.34***	.56***
권위주의적 통제	-.28***	-.34***
과보호	-.08	-.05
성취	.26***	.39***
적극적인 참여	.25***	.46***
일관성 있는 규제	.18**	.31***

*p<.05, **p<.01, ***p<.001

<표 7>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일반적 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
합리적인 지도	.29***	.21**
애정	.38***	.26***
권위주의적 통제	-.20**	-.23***
과보호	.03	-.01
성취	.25***	.12*
적극적인 참여	.31***	.23***
일관성 있는 규제	.16*	.27***

*p<.05, **p<.01, ***p<.001

향을 미치는 변인(Brand & Hirsch, 1990; Ross & Mirowsky, 1988)으로써, 일반적 만족감을 비롯하여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의 지지 및 자녀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더 온정적이라고 보고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도현심·김지신, 1997).

V. 논의 및 결론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경로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과거에 소홀히 다루어졌던 아버지를 포함한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역할에 있어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Goldstein & Ross, 1989), 이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상쇄하는 데 부모로서 느끼는 역할만족도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Guidubaldi & Cleminshaw,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연령의 아동들이 부모에게 안겨주는 역할 부담감이 크고, 아버지의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유치원에 자녀를 취원시킨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졌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상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역할만족도에 차이가 날 것으로 추론되었으나 실제로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자녀의 성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수행에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결과(윤서영·정옥분, 1999; 조복희·현온강, 1994)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로서의 역할만족도에 있어 취업한 어머니

니와 전업주부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복희·현온강(1994)과 강희경(199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나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된 Goldstein과 Ross(1989)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되지 않는 결과는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 동기와 직무조건 및 작업 환경 등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양육태도에 있어서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는 직업환경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목표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선행연구에서 직장에서 얻은 관리 기술이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며(Crouter, 1984), 동료들간의 비공식적인 우정 또한 아동양육에 대해 충고나 준거기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Greenberger et al, 1989)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TV 과다 시청과 나태한 생활 습관을 걱정하고 있는 점(이옥, 1997)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인 태도는 직장으로 인해 자녀의 일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어머니의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정도 및 가정 소득이 높은 부모가 교육정도 및 가정 소득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태도에 있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교육을 받은 일부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할 수 있는데 비해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지닌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더욱 가치를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Goetting, 1986).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정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만 전적으로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려는 접근에 있어 의문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내적 특성 즉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신념,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원 정도 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더 강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Luster & Kain, 1987, 문혁준, 1999), 더 나아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소득 보다 주관적인 상대적 비교감과 경제수준의 향상감이 부모양육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표기하는 질문지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태도를 구분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가지고 부모의 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머물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취업 외에 취미 활동, 친목 모임 등 자아실현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 정도 혹은 자아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지지 정도를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인의 취업종류, 근무 시간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행동, 태도, 가치 등과 중요한 관련을 가지며 다시금 아버지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므로(Kaplan et al, 1987; Pearlin et al., 1981)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동시에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Goldstein과 Ross(1989)의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에게 요구가 많을수록 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연령, 성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요구 정도 혹은 기질 유형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지지도와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관계는 살펴보았으나, 어머니의 지지도가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살펴볼 수 없었다. 이는 De Luccie(1996)의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아동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 측면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직접 보고에만 의존함으로써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및 실제 부모양육태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일반적 만족도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반적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교육정도 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신의 연령, 소득 수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신의 교육정도 및 취업여부, 소득 수준,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역할에 만족할수록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는 각 가정체계내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한 반복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위해서는 역할만족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정내에서의 부부간 상호 지원 및 협력 등을 통한 화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더 나아가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모 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정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역할 만족도와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 옥선화(1994).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I: 부모기 전이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 양육분담.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6.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복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김현순(1993).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흥미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박인전(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박경아(1998, 3, 29). 기아 학대 버림받은 아이 갈수록 높다. *동아일보*, p.15.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 양미경, 조복희(2000). 에릭슨의 발달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간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57-64.
- 윤서영, 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원정성(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1997).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 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8, 25-42.
- 이하경, 최익재, 김정하(1998, 4, 27). 궁핍해진 가정 - 인륜이 무너진다. *중앙일보*, 1-2.
- 이현란(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1993).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최혜숙, 이은혜(1998). 맞벌이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사와 자녀양육 참여. *연세대생활과학논집*, 12, 84-93.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영립, 윤혜진(1999).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자아 존중감, 부친의 양육성 지각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4(2), 145-157.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varez, W. F. (198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350-36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and, S., & Hirsch, B. J. (1990). The contribution of social networks, work-shift schedules, and the family life cycle to women well-being. In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pp. 159-173). Newbury Park: Sage.
- Chillman, C. S. (1980). Parent satisfaction-dissatisfaction and their correlates. *Social Service Review*, 53, 195-213.
- Cohen, T. F. (1987). Remaking men: Men's experiences becoming and being husbands and

- fathers and their implication for reconceptualizing men's l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8, 57-77.
- Coley, R. (1998). Children's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functioning in single mother households: The importance of fathers and other men. *Child Development*, 69(1), 219-230.
- Coosey, E. C., & Fondell, M. M. (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93-707.
- Crouter, A. C. (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5, 71-90.
- De Luccie, M. (1996). Mothers: Influential agents in father-child relation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2, 115-131.
- Goldstei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 Goetting, A. (1986). Parental satisfaction-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83-109.
- Gottfried, A. E., & Gottfried, A. W. (1988).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An integration of longitudinal findings with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pp. 269-289). Plenum Press: New York.
- Greenberger, E., Goldberg, W. A., Hamill, S., O'Neil, R., & Payne, C. K. (1989). Contributions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parents' well-being and orientation to 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755-783.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Fine, M. J.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Hass, L. (1988, November). Understand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PA.
- Hewlett, B. S. (1992). Husband-wife reciprocity and the father-child relationships among Aka pygmies. In B. S. Hewlett (Ed.), *Father-child relations: Cultural and biosocial contexts* (pp. 153-176). New York: De Gruyter.
- Hirsh-Pasek, K., Hyson, K., & Rescorla, L. (1990). Academic environments in preschool: Challenge or pressur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401-423.
- Hoffman, L. W. (1978). Effects of the first child on the woman's role. In Miller, W. B., & L. F. Newman (Eds.), *The first child and family forma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offman, L. W., & Manis, J. D.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Kaplan, G. A., Roberts, R. E., Camacho, T., & Coyne, J. C. (1987).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on: 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human population laborator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5, 206-220.
- Lavee, Y., Sharlin, S., & Katz, R.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14-135.
- Lewis, M., & Weinraub, M. (1976). The father's role in the child's social network.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57-184). New York: Wiley.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Maccoby,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Ewen, K. E., & Barling, J.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experiences on children's behavior via mood, cognitive abilities,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5-644.
- Marini, M. M. (1980). Effects of the number and spacing of children on marital and parental satisfaction. *Demography*, 17, 225-242.
- Menaghan, E. G. (1989).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parents and nonparents: The importance of normative expect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47-565.
- Nye, F. I., Carlson, J., & Garrett, G. (1970). Family size, interaction, affec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 216-222.
- Park, S. Y., & Belsky, J. (1998).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in Bern, Swiss.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rior, M., Sanson, A., Carroll, R., & Oberklaid, F. (1989).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emperament ratings o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5, 239-248.
- Rendina, J., & Dickerscheid, J. D. (1976). The father involvement with first born infants. *Family Coordinator*, 25, 376-378.
-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anson, A. V., Smart, D. F., Prior, M., & Oberklaid, F. (1993). Interactions between parenting and temperament among 3- to 7-year-old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 Scott, J., & Alwin, D. F. (1989).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strain: Parental role or gend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82-503.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Thoits, P. A. (1992). Identit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Gender and marital status comparis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3), 236-256.
- Umberson, D. (1989). Parenting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ntext.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27-439.
- Ward, M. J., Vaughn, B. E., & Robb, M. D. (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 attachment in siblings: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27-546.
- Woodworth, S., Belsky, J., & Cmic, K. (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79-692.